

가을밤 예술 열정이 수놓은 희망의 선율

소년소녀가장음악원희 희망의 음악회 **신들린 음악의 열정** 제2회 깃배위 결선공연

사진 = 정진영부장 제갈강 이재명 기자

지난 12일(일) 오후 7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



꿈이 현실로 제2회 깃배위 예술제 영재의 전체대상을 수상한 해인여자중학교 학생들의 공연 모습



바이올린 선율에 취해 고등학생 참가자의 바이올린 연주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관객들은 넋을 잃기도...



우리가 곧 미래다 무대밖에서의 개구쟁이 같은 모습과 전허다하게 진지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 부채춤을 선보이는 초등학생 참가자들.



희망의 핸드벨 하수 교수의 자위로 시작된 광명원 핸드벨팀 공연은 많은 관객들의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했다.



사랑의 포옹 목포시여성단체협의회 김순희 회장이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어린학생을 꼭 껴안아주고 있다.



건반위의 고사리손 초등학생 남자 아이의 무대에 오르지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지만 어쩔 수 없는 진지한 모습에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신들린 예술의 열정 이번 대회를 주최한 목포시여성단체협의회 김순희 회장(사진 중앙 좌측 첫번째)과 주관한 본부장태영 사장(우측 네번째)이 결선대의 참가자들과 함께 다음대회를 기원하며...



응원단 대회를 기대하는 관객 속에서 참가자 가족들의 열띤 응원전도 펼쳐졌다.

목포투데이 TV
결선대회 공연
인터넷 생중계
www.mokpotoday.com Click



앵글도 준비했는데 실용음악부문에 참가한 한 아저씨의 색소폰 연주에 아기가 들쭉이기도...



베스트 드레서 성악부문에 참가한 초등학생 여자의 화려한 의상과 음성이 무대를 한층 더 환하게 했다.



선율을 타고 히피어 30명으로 구성된 초등학교 기타팀의 리코디 선율이 조화를 이뤄 멋진 무대를 장식했다.



나도 한때는 실용음악부문에 한 남학생이 클래식 기타 연주를 사귀어져 객석에 있는 아버지들의 한바디...